

농협, 8876억 연체빚 정리...“취약층 9만명 재기 지원”

5년간 포용금융 15조3000억 공급

6만4000명 신용회복...원리금 감면

농협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하고, 향후 5년간 15조원 이상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서민·농업인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농협금융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농협자산관리까지 참여한다.

농협은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금융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협은 올해 총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해 약 9만명의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87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약 6만4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 부담을 해소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계열사별 소각 규모는 농협은행 2870억원, 농축협(상호금융) 1500억원, 농협자산관리 2500억원이다. 농협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785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이미 소각했으며 연말까지 5085억원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총 2006억원 규모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한다.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미수이자에는 전액 면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약 2만6000명이 금융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함께 향후 5년간 15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8조5000억원, 서민금융 및 취약계층 지원 대출 6조8000억원 등을 공급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전국 1109개 농협에서는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위한 2%대 저금리 상품인 ‘농

심전심 희망대출’을 판매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동행장구’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동 편의 지원, 정보 접근성 개선,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등에 최대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 파트너’를 출시했으며, 이달 중에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NH청년 지역리턴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2금융권 이용 고객의 1금융권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차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신용 개선을 돕는 금융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감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범농협 차원의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15일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전남쌀 구매하고 양파소비 UP! 농가웃음 UP!’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본부 양파소비 캠페인 하나로마트 남악점 등서 진행

농협 전남본부는 15일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전남쌀 구매하고 양파소비 UP! 농가웃음 UP!’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양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하나로마트 남악점과 목포유동센터에서는 전남쌀 10kg 이상 구매 고객에게 양파 3kg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행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전남본부는 사은품 증정 행사 외에도 다양한 양파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근대식당에서 양파김치와 간짜장 등 양파를 활용한 메뉴를 제공해 임직원들이 소비 촉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양파를 활용한 요리교과를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꿈나무달’ 행사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을 보낼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남쌀 소비 촉진과 연계한 이번 캠페인이 양파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전남농협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준 양파 도매가격은 kg당 624원으로, 평년 같은 기간 평균 가격인 997원보다 37%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과 소비 둔화가 맞물리면서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가부채 증가세 가속...농업금융 정책 전환 필요”

2023년 농가 평균 부채 4458만원...전년비 18.7% 급증

40대 이하 부채 증가 속도 가장 빨라...한계 경영체 우려

농업 성장 둔화 속에서도 농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차입 부담이 커지면서 성장 지원과 위험 관리를 병행하는 농업금융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4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농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지만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4.7%로 이전 10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여서 농업경영체의 부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농업경영체의 부

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청년농과 전문농의 경우 규모 확대와 시설 투자 과정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재무 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채가 농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재원이지만 과도한 부채는 경영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업경영체 유형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경영체는 이른바 ‘한계농업경영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한계 경영체 비율은 높은 반면 해당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현재의 농업금융 정책도 단순한 저리 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성

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한 투자 지원과 위험 경영체에 대한 조기 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한편 청년농과 전문농의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경영회생 지원과 재무 컨설팅, 정책금융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는 농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에 실패하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경영체의 성장 단계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미·이란 종전 수순...국내 원유 수급 ‘신중론’

정부, 충분한 원유 확보...최고가가격제 종료 시점 검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당장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란이 해협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기뢰는 탐지가 쉽지 않아 제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안전한 통항이 보장된다고 해도 중동에서 한국까지의 긴 항행 거리로 실제 원유를 도입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비중동산 대체 원유를 도입해 8월까지 충분한 원유를 확보한 만큼 미국

과 이란 간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 정도를 중동에 의존하고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에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과 함께 시작된 해협 봉쇄는 사실 치명타였다.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종량제 쓰레기분류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는데 등 산업 공급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흔들렸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서고, 비중동산 대체 원유 도입에 속도 내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원유 공급 물량은 현재 상당 부분 안정 궤도에 올랐다.

천연가스 역시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우려를 지워냈다.

김 장관은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 다변화된 원유 공급망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기에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국내 원유 수급 체계에 미칠 영향은 거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진격의 거인 한정판’ 패키지 2종, 간부조 패키지(원액)와 리바이 패키지.

보해양조, 글로벌 인기IP 협업 확대

게임 ‘디아블로’ 이어 ‘진격의 거인FINAL’ 한정판 판매

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일본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 공식 전사회 ‘진격의 거인FINAL’과 협업해 한정판 주류를 선보인다.

일본 만화가 이사야마 하지메 원작 ‘진격의 거인’은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권(IP)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협업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덕스(DUEX) 홀대에서 개최되는 ‘진격의 거인FINAL’을 통해 진행된다.

제품은 작품 내 조사병단의 핵심 인물 리바이 패키지 총2종으로 구성되며, 전사회 한정 공식 굿즈숍에서만 판매된다.

보해양조는 한정판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반 소주 대신 증류주 브랜드 ‘고마그라제’를 적용했다. 15.1도, 용량은 375ml다.

보해양조는 앞서 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세계적인 히트작 ‘디아블로’의 세계관을 담은 증류주 ‘악마의 영혼’을 선보여 시장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보해양조는 앞으로도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IP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디아블로’ 협업을 통해 서브컬처 팬덤 시장의 높은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세계적인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 공식 전사회 협업해 팬덤 소비층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고 새로운 주류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한정판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반 소주 대신 증류주

진천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장성군지부, ‘농심천심 스쿨팜’ 체형

북이초서 초등생·유치원생 양파 수확행사

농협 장성군지부와 백양사농협은 최근 장성 북이초등학교 야외 텃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농심천심 스쿨팜 양파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의 ‘농심천심 스쿨팜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내 농업체험 공간을 조성해 미래세대의 농업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상길 농협 장성군지부장, 장영길 백양사농협 조합장, 문인상 장성교육지원청 과장, 손문의 북이초등학교장을 비롯해 북이초등학교 학생과 병설 유치원 원아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양파를 수확하며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배우고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지부는 북이초등학교 스쿨팜 운영 지원을 위해 토마토와 호박 모종, 유기질 비료 등 2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도 전달했다.

학생들은 앞으로 스쿨팜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 체험활동을 이



농협 장성군지부와 백양사농협은 최근 장성 북이초등학교 야외 텃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농심천심 스쿨팜 양파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같 예정이다. 이날 수확한 양파는 학생들이 각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예정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길 농협 장성군지부장은 “양파를 수확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체험이 우리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농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